

“저금리·고령화, 질·효율 영업-신시장 개척으로 극복”

보험, 飛上 2020 전략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 등 5대 목표 전년비 21.6% 감소... 2202억 순익 RPA 바탕 보험거래 디지털화 추진 해외사업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계획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삼성생명은 2020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도전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잡았다.

향후 보험업계가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신사업, 신시장을 찾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5대 목표로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 ▲‘질(質)과 효율’ 중심의 영업문화 ▲고객 만족과 상품채널 혁신 ▲신사업 발굴 및 신시장 개척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정했다.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은 8일 “보험산업의 위축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 등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지난 몇 년간 상품, 채널, 고객, 원가, 조직문화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6대 혁신을 추진하며 위기상황에 대응해 왔

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2807억원) 대비 21.6% 감소한 22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76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67억원) 대비 7499억원(43.4%) 줄었다. 다만 2018년 5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7515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들어 16억원 증가했다.

우선 삼성생명은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를 위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와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메트로DB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는 원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여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양(量) 중심의 영업문화를 질(質)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질과 효율’ 중심의 영업은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지속성장을 위한 목표이다.

일본의 주요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의 위기 속에서 ‘질과 효율’을 강조해 강자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킨 사례가 있다. 삼성생명도 질적 성장을 통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삼성생명은 고객 만족과 상품·채널

혁신을 통해 보험업계 최고의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불편, 불만, 불친절이 없는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치밀한 상품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다.

보험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성생명은 설계사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영업하도록 하고, 단순업무 자동화하는 RPA를 바탕으로 보험거래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는 업무 과정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형화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로 반복되는 단순업무를

효율화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개척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제휴, 투자를 통해 보험산업의 프로세스 혁신을 리드하고 신사업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태국과 중국 해외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의 궤도에 들어섰지만 전략적 변화를 통해 해외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설립된 태국 현지의 합작법인 ‘다이삼성’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또 해외 우량 생명보험사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 시장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해 불법이나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도 더 늘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한은-금융당국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하기로

한국은행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시장 일일점검반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8일 오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이란의 대(對)미 보복공격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한은은 이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추가,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변동폭이 축소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윤 부총재는 “향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관련 이슈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시장국과 국제국, 외자운용원, 국제경제부, 국외사무소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부총재보와 박종석 부총재보,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공보관, 국제경제부장, 투자운용부장, 자본시장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금융시장 일일점검반을 구성·가동한 바 있다. 중동 불안과 관련한 국제정세와 국내의 금융시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김희주 기자

대형 저축銀 순익, 지방銀 수준 버금



부실자산 매각 등 이익 증가 영향

SBI저축銀, 누적순익 1562억 웰컴저축 814억, OK저축 747억 순익

SBI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견줄 정도로 순이익을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실자산 매각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고, 중금리대출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상위 저축은행이 하위 지방은행과의 순이익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SBI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56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 957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순이익이 높은 부산은행이 3559억원을 기록했고 대구은행 3046억원, 경남은행 1626억원, 광주은행 139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의 실적도 견줄 만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이 814억원, OK저축은행은 747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올렸다.

즉 상위 지방은행 일부를 제외하고 순이익만 따져볼 경우 상위 저축은행들이 일부 지방은행의 순이익을 따라잡고 있는 모양새다. 총 자산으로 따졌을 때 저축은행보다 지방은행이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것을 감안, 저축은행의 실적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저축은행의 수익은 중금리대출 효과가 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는데 이 규제에서 낮은 금리대출을 제공하도록 도입된 중금리대출만 제외됐다.

실제 저축은행 각 사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개인·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 3분기 SBI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9.63%, 가계대출 비중은 50.35%다.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대출금은 6조8223억원에 달

한다.

하지만 올해도 상위 저축은행들이 지방은행과 견줄만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저축은행의 수익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대출총량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에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수익 사업인 중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P2P금융, 카드사,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관련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반면 업계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고 저금리 기조도 장기화되는 등 저축은행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각종 규제도입 영향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지난해 정도의 실적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현대해상 임신 등 위험 보장 ‘굿앤굿어린이보험’

현대해상은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된 임신·출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다발성 소아암, 4대 장애, 양성뇌종양 등 어린이 중병을 비롯해 자녀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수술,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질병입원, 응급실내원진료비 등도 보장한다. 선천이상으로 인한 보장 공백을 없앤 것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원형탈모증, 특정 언어장애, 말더듬증에 대한 보장을 신설했다.

/김희주 기자